

##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2020년 기해년이 저물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향군회원 모두가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코로나 19’ 종식과 함께 움츠렸던 몸과 마음 활짝 펴고 힘껏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하고 활기찬 활동을 통해 향군 위상 제고에도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신년사

## ‘신축년’ 변화와 혁신으로 향군이 재도약하는 해

친애하는 1천만 향군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 아침을 맞이하여 전국의 각급 회와 해외지회 그리고 산하업체에서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향군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북한 위협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군대가 육성되도록 지원하며, 한 미동맹 공고화를 위한 안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향군은 새해 벽두부터 진보성향의 반미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고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대처한데 이어 정부의 호르프즈 파병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정치권의 친일청산 운운하며 창군원로들의 현충원 파묘주장을 비롯하여 김원웅 광복회장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과 역사왜곡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호국영웅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안장 반대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를 하였으며, 북한의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만행에 대해 규탄하고, 북한이 75주년 열병식에서 최신헌 전략무기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하였으며,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의 북핵보유 옹호 발언에 대한 규탄 및 사퇴 촉구 등 시사각각으로 전개되는 안보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최대 안보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예)육군대장

단체로서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즉각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고 재난극복에 힘을 보탤며, 코로나 극복과 수해 복구를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현역장병과 부대를 찾아 격려하고 위문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고 6·25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등 국군장병들의 사기 앙양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공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대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향군 각급회와 해외지회 그리고 산하업체 임직원 등 1천만 향군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현실과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우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새로운 비대칭 무기와 소위 ‘신무기 4중세트’를 공개 하며 대남 군사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등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하겠다는 전략전술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우리의 정권 말기의 취약한 틈을 타 어떠한 도

발을 할지 누구도 예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이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북한의 ICBM이 우리와 상관없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고 평가하고 “공산주의면 어찌나·민족이 하나 된 국가면 되지”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극히 위험한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는 고도의 전략에 휘말려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논리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미국에 대한 불신 또는 반미감정을 여론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해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정부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를 유지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함한 그 어떤 비대칭 무기를 보유하고 무모하게 군사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군사동맹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의 기본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에 따른 향군 산하업체의 경영부진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향군의 금융부채가 5,500여 억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임 후 향군 각급회 회원과 산하업체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의 구조조정, 미 매각 부동산과 부실기업 정리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2020년 말 기준 4,800여 억원으로 부채를 감소시켰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향군의 주력 기업인 중앙고속에서만 250여 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올해 향군 경영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회장인 저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명실공히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향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1천만 향군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 2021년은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어느 때 보다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향군은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국내 최대 안보단체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안보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총력 대응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 올해는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2020년 9월에 계획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 일원에서 최초로 개최됩니다. 향군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희망찬 2021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향군이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각급회 및 산하업체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향군성명

# 송영길은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장이 맞는가?

## “북에 핵 가지지 말라 강요할 수 있나?”...북 주장 대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대북전담급지법 찬성 토론에서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한 발언에 대해 향군은 12월15일 “대한민국 외통위원장 신분으로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외통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향군은 “송영길은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장이 맞는가?, 망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외통위원장을 즉각 사퇴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송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이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을 중심

으로 한 국제사회와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거로서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송 위원장의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라는 발언 등은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는 직분에 벗어난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국론분열과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향군은 우리 스스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적 탈법행위로 인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 향군, 원광디지털대학교와 업무협약

## 입학금 면제 등록금 50% 감면 혜택

향군은 12월10일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규열)와 교육분야의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인력 및 시설의 상호 교류, 대외 교육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 관심 분야 협력을 위한 친선교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군 및 직영사업체,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이 전액 면제되고 수업료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향군 회원은 입학금 전액 면제와 함께 수업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전국 최고의 영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태권도 경호학과 등 총 17개의 전공학과를 운영 중에 있다.

김진호 회장은 “양 기관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임직원 및 향군회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기고

# 2020년 북한정세 평가 및 새해 전망

2020년은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코로나로 얼룩진 한 해였다. 방역·보건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의 경우 초강경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코로나에 대응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제재와 20년 여를 북한 지역을 강타한 풍수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북한은 유례없는 3중고의 어려움을 겪었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3중고로 인한 경제실패를 자인하기도 하였다.

작년 초 만하더라도 북한은 당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정면돌파전과 대미결사항전으로 대외 압박에 버티면서 자력갱생에 토대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국경봉쇄와 주민통제라는 고전주의적 국가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중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의 물자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고충을 주민들에게 토로하였고 그 이후 내부 가용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진행하였다.

### 코로나 방역 중심 내치 집중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방역을 중심으로 내치에 집중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무대응 혹은 상황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바라면서 미국 대선을 감안,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았으며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일체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에서는 보건위기가 지나고 대남관계를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가 하면 서해 우리 국민 피격사망 사건도 하루 만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남북관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021년은 북한에게 있어서도 전환의 기간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금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보급되기 시작하고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보아가면서 국경을 개방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물자도 입과 경제정책 전환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1월로 예고된 제8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10년의 김정은 정권 비전과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에 따른 자력갱생의 비전을 재차 강

조될 것이다. 금년에도 대외관계보다는 내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북한도 대외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의도 정도는 내비칠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그럴듯한 경제정책을 세운다하더라도 대외경제 여건의 진전이 없으면 북한 내부적인 경제개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에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좀 더 원칙적이고 까다로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와 북미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북한은 우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 새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마련하는지 탐색을 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장에 나올지 저울질 하게 될 것이다.

대남관계는 다소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하기 보다는 우리 측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하면서 대미관계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남북관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는 등 대미·대남관계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북한은 도발행위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 2021년 대남관계 우호적일 것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은 미중갈등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틈새외교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새 행정부는 한미일 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압박이 강해질수록 북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 냉전적 구도가 한반도에 드리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미중갈등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분리하고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한의 외판과 인위적인 도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정책을 펼치도록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2 공동성명에 토대해서 양국대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촉진자 역할에도 배가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향군 자문위원

## 군번만 있으면

#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바로보기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 정회원 자격 : 군번소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 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 전국 가맹점별 할인(10~30%)
  -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 웨딩' 할인 (웨딩, 뷔페 등 전품목 15%)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APP 다운로드 방법**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를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 2021년 국방예산 52조 8,401억 원 확정

##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국방개혁 추진에 효율적 활용

2021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에서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대신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

II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어, 2,097억원이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비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정부안과 동일하게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도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

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검독수리-B Batch-II 1,096억원, 합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II 316억원, 특수침투정? 특수전지원함 226억원 등 2,573억원이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II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II(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1,799억원이다.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방단신

####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

국방부는 12월 21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을 제8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017년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었을 당시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했으며 2018년 연합방위지침 공동 서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애초 올해 10월 14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내년 초에 추진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매티스 장관의 뜻에 따라 수상자 명의로 '한국 전 참전용사 추모의 백' 건립 사업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 교환

서육 국방부 장관은 12월 10일 화상으로 열린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하여 각국 장관들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국제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심화되는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다자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아·태지역 평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 국군의무사령부, '코로나-19 백서' 발간 ... 군 병원 등 배포

### 그간 활동성과 종합 ... 3차 유행 대비, 공중 보건위기 대응 매뉴얼 담아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헌신 온 국군의무사령부가 12월 7일 그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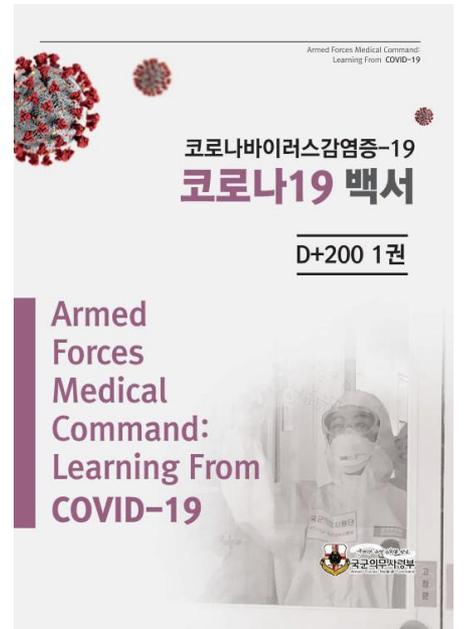
백서에는 지난 1월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한 의무사의 코로나19 관련 지원활동과 노력이 충실히 적혀 있다. 또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과 성과, 한계를 평가하는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공중 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훈도 담았다.

총 944페이지 분량인 백서는 1·2권으로 나눠 구성됐다. 석웅(육군준장) 의무사령관의 발간사와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동향으로 시작되는 1권에는 △방역대책본부 운영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조치(역학조사·진단검사 등) △국가지정감염

병전담병원 운영 △국가위기대응 군 의료지원 △군 병원 기능조정 및 예하부대 대응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권은 △의무사 각 기능별 조치사항 및 추진성과 △주요 인사 현장지도 △코로나19 대응 소감문 등이 수록됐다.

의무사는 약 200부를 제작해 국방부와 의무사 예하 모든 군 병원, 육·해·공군 병원, 야전 의무부대 등에 배포했으며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백서를 e-북 형태로도 만들었다.

의무사는 지난 3월부터 이상희 의무기획 발전처장과 이순영 예방의학처장을 공동 추진위원단장으로 코로나19 백서 발간 추진위원단을 꾸려 백서 발간을 준비했고 백서 조기발간의 필요성에 공감한 국군인쇄창 역시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국군장병 의료지원 확대

### 전·공상 병사 완치까지 전역 보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상 병사의 입원치료가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률은 유급지원병의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여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

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도 강화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

수자가 추가됐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본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발의 안 9건을 병합한 국방위 대안으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공포됐으며 이번 개정은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2021년 국가보훈예산 5조 8,350억원 확정

## 1,554억 증액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12월 2일 국회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증액 등을 통해 확정된 5조 8,350억원의 보훈예산은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 사용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올해 4조 3,715억원보다 2.6%(1,153억원) 증액된 4조 4,86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중 6·

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만원에서 약 4배 인상된 9만원을 지급(635억원)한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시 지원하는 진료비는 올해 6,085억원보다 2.0%(120억원) 증액된 6,205억원이 배정되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의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도 508억원이 배정되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7억원), 인천보훈 병원응급실설치(35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40억원),

재활센터 확충(174억원), 보훈요양원 건립(232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립묘지 조성·확충을 위해 501억원이 배정되어 제주(221억원)와 연천(59억원)의 국립묘지 신규조성과 더불어 대전현충원(37억원), 이천(148억원)·임실(10억원)·괴산(5억원)·영천호국원(19억원) 등의 봉안당 건립에 사용된다.

독립·호국 등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620억원이 배정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314억원),미국 추모의벽 건립(267억원), 그리스군참전비 이전(8.8억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

### 국가보훈처-경기도-연천군 성공 추진 힘 모아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이 11월27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광철 연천군수, 국민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구체화하

는 것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토지보상 및 진입로 확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상호협력과 의무이행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처는 수도권 및 강원권 국가유공자의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연천

현충원을 조성키로 하고 2018년 부지 적격성 평가를 통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5만기 규모로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누리집 개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누리집(<https://edu.mpva.go.kr/tambang>)을 7일부터 개설한다. 누리집은 ‘역사, 미래의 이정표가 되다’라는 표어로 고난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의 의미를 담아 개설

했으며 보훈처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https://edu.mpva.go.kr>) 내에 운영한다.

누리집에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련정보를 게시하여 탐방 시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수한 탐방 후기 콘텐츠(관련영상,

보고서 및 사진 등)를 제공하여 사적지에 대한 간접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독도감치’, ‘동경이’ 등 일제에 의해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6종을 상징물로 제작하여 사적지 정보에 대한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였다.

##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전국 7번째 국가유공자·유족, 안락한 노후지원 및 요양 서비스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요양 시설인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이 12월16일 전국 7번째로 개원했다.

복권기금 366억원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 9,785㎡(연면적 10,515㎡) 규모로, 넓고 건립된 원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센터 25명이 입소 가능하며 1인실 8개와 2인실 16개를 설치해 개인의 취향 및 부부 동반 입소 등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4인실도 폭넓은 간격을 유지해 개인의 독립성과 감염병 위험을 대비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한 충분한 배회 동선을 확보했고 한국적 전통미를 고려한 실내장식으로 새로운 환경에 빠른 적응을 하도록 했으며 거실 주방을 설치해 소외감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각종 재활치료실 등은 생활공간 개념을 고려해 설계했다.

그동안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보훈가족의 고령화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안락한 노후지원과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21회 보훈문화상 시상식, 김동우 외 5명 수상

### 국가유공자 예우, 나라사랑 정신 기리는 사업 펼쳐



국가보훈처는 12월7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삼득 보훈처장과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보훈문화상 수상자는 △김동우 사진작가 △최종분 자원봉사자 △허연수 (주)GS리테일 대표이사)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5명으로 이들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보훈문화상은 독립·호국·민주 관련 유공자와 유엔참전용사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의 업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경기도 포천시 향군, 전국 최초 온라인 읍면동 워크숍

## 자료 기 배포, 영상 유튜브에 게재 ... 짜임새 있는 안보교육

포천시 향군(회장 강수영)은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유튜브를 통해 읍면동회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 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온라인을 통하여 포천시향군 모든 회원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향군은 먼저 워크숍을 실시하기 전 읍면동회 임원에게는 교육자료

를 먼저 발송하고 강수영 회장의 격려사와 박윤국 포천시장의 축사 그리고 경기도회 사무처장의 안보교육 등이 담긴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안보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수영 회장은 “현 상황이 읍면동회 회원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임을 알고 있고 총회도 못하고 모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온라인으로 진행 되는 안보교육이

만 언제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모든 회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예방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잘 극복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포천시향군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포천시재향군인회로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 우리의 미래 6~7세 어린이 1,200여명 대상 안보의식 고양 비대면으로 체험·놀이식 교육...집중도 및 교육 효과 향상

### 서울 서대문 향군 “대한민국 5대 상징물 교육”

서울 서대문구 향군(회장 김정철)이 올 한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6~7세 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5대 상징물(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나라도장, 나라문장)에 대한 체험식, 놀이식 교육을 실시하여 높은 호응과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대문구 향군은 2018년부터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조기에 심어주기 위해 대한민국5대 상징물 교육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자칫 교육을 전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6~7세 어린이들이 호응하고 집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 교육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참여도와 흥미도 증진을 위해 특별히 영상 교재 제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영상만 보고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교육 집중도와 교육의 효과성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시 제공하는 기념품도 대한민국 5대 상징물과 연관이 있는 책상 및 태극기 문양 바람개비, 태극기 문양 손수건, 대한민국 지도 퍼즐, 간식예다 올해는 특별히 손세정제를 포함시켰다.

2018년 9회(약270명), 2019~20

년 총40여회(1,200여명) 실시된 서울 서대문구 향군의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은 관내 주민 및 학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교육에 참여했던 어린이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교육 횟수 및 교육 대상 연령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향군은 금년 한 해 동안 실시했던 어린이 나라사랑교육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1년 교육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장학금 120만원 기탁

## 인천 계양구 향군, “어려운 학생에 작은 도움 되길...”



인천 계양구 향군(회장 구승서)은 11월2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장학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구승서 회장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관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이노경 인재양성교육재단 이사장은 미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양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세밑 온정’ 홀몸 어르신 가구에 이불 전달

### 청도군 향군 여성회

경북 청도군 향군 여성회(회장 노현미)는 12월17일 따뜻한 겨울 나누기 이불 증정식을 갖고 지역 저소득층과 관내 홀몸 어르신 등 25여 가구에 준비한 이불을 전달했다.

매년 국가유공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크고 작은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해 온 여성회는 이밖에도 5년 전부터 매년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있다.



노현미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면서 “홀몸 어르신들의 추운 겨울이 더욱더 따뜻해질 것을 생각하면 우리 여성회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경기도 향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자발적 동참 캠페인 전개

경기도 향군(회장 황신철)는 연말을 맞아 12월12일, 2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자발적 동참 홍보 등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경기도 향군은 집합금지 동참 스티커를 부착한 핫팩과 마스크를 도민들에게 나눠 주면서 강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했다. 황신철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주까지 31개 시·군 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이라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이번 집합금지의 성과와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0 향군주요활동

코로나19 대 유행... 모든 것 멈춘 한해

## '위기를 기회로'

지난 1월 첫 감염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전국을 휩쓸고 있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향군도 올 한해 방역활동, 성금모금, 마스크 지원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3월2일부터 2주간 본부와 각급회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1억원 이상을 모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이와 함께 당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 경북지역에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도왔다.

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감



사의 표시로 5월11일 육 해 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방문, 격려금 총 6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 각급회에서도 지

## 코로나 유행 속 안보 제2보루 역할 다해

안보사안 마다 적절한 성명 통해 대북 경각심 고취

향군은 9월22일 비무장 상태의 우리국민을 서해에서 피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드러나자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한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15일 북한이 열병식 행사에서 최신 전락무기 공개 및 "총격적 실행"을 공언하자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그 수위가 위협을 넘어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2월14일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망언을 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규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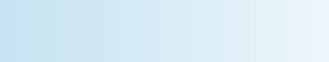
##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영면

향군, 전국 각지 분향소 설치...마지막 길 배웅

백선엽 장군이 7월10일 밤 11시 4분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이에 향군은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223개 시·군·구회마다 추모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특성에 맞게 분향소를 설치하여 향군회원은 물론 뜻있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아울러 7월15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 향군회원 500여명이 참석하여 백장군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며 명복을 받고 영면을 기원했다. 한편 향군은 일부 사회단체들이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 경



력을 이유로 전쟁 영웅들을 매도하고 폄하하는데 대해 엄중 경고하고 "국민들은 물론 미국 국민들로부터도 '살아있는 전쟁 영



## 화상으로 진행된 미 참전용사 보은행사

헌신·희생 감사...성금 1만불, 마스크 5만장 전달

향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30일 미 한국전참전협회 폴 커닝햄 회장,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존 탈렐리 이사장과 함께 화상으로 보은행사를 갖고, 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김진호 회장의 모두발언 △미 한국전참전협회 커닝햄 회장에 향군대위장 수여 △성금 1만불 및 마스크 5만장 전달 △동영상 시청 △감사 편지 낭독 △간담회 순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6.25전쟁 70주년의 의의와 최근 한반도 안보정



세,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받은 미 한국전참전협회 등 참전단체들은 감

## 분단상징 판문점 찾아 안보의지 재확인

JSA장병에 노고 격려, 안보활동 추진동력 마련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장단 및 부서장들이 11월10일 분단 상징인 판문점을 방문, JSA장병에 노고 격려하고 굳건한 안보의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향군 방문단은 JSA대장의 안내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대통령 기념식수, 도보다리, 대성동마을 등을 둘러보고 조국의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판문점 방문을 통해 향군은 안보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안보단체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진호 회장은 JSA장병들의 노고를 치



하며 "최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 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우리의 안보현실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견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창군원으로 파묘 주장 규탄, '토사구팽' '배은망덕'

향군, 호국영령 욕되게 하는 것...묵과 할 수 없어

향군은 5월2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일부정착인들이 '2020친일파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 참석하여 "친일정신"을 운운하며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을 욕되게 하지말라"고 강조했다. 또 6월4일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군인 56명을 이장해야 한다."고 발



표한 군 인권센터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창군멤버로 임명하여 6.25 전쟁 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김일성의 공산화를 막

아닌 공로로 현충원에 안장된 전쟁영웅들을 토사구팽하는 주장이라며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거복지 지원

LH공사와 업무협약,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향군은 11월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성남판교사업본부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선도해가는 LH가 향군과 함께 1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보유중인 매입 임대주택을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제공하고 향군은 지자체와 입주 희망 제대군인의 수요를 조사해서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LH가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은 2019년 12월말 기준 약 7만여 명으로 주택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간편 회원가입 시스템, 모바일 앱 오픈

신규 정회원 1만5천여 명 가입 성과...조직 활력



향군은 지난 1월3일 모바일 시대를 맞아 향군전용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4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된 향군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정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분부 및 각급회 소식 및 연락처, 향군 가맹점 등 복지혜택 안내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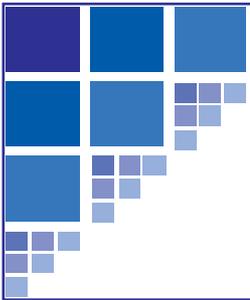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앱 설치 이후 1년간 신규 정회원 1만5천여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군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젊은 향군회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의 역할과 국가공로 제2보루로서의 사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홈페이지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 국가안보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 나갈 예정이다.

## 1천만 향군회원 어려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11월21일 ~ 12월20일)

## 부산시 향군



**남 수영구회** : 망미2동회는 12월3일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5포를 기탁.

## 대구시 향군



**수성구회** : 11월25일 관내 자연정화봉사 활동 실시. 11월26일 지역 내 현충시설을 참배하고 안보 단합행사 실시.



**중구회** : 11월21일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을 찾아 전몰유령탑 참배하고 호국영령 열거.

**동구회** : 12월1일 봉무동 단산지 주변에서 자연보호 및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환경정화 활동 펼쳐.

**남구회** : 12월11일 지역 내 향군회원 증생계보조비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대상으로 김치 나눔 행사 실시.



**달성군회** : 12월 초 산불예방활동 캠페인 후 송해공원 입구에서 쓰레기 수거 등 지역 사회 정화활동 실시.

##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2월10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방문, 도성훈 교육감과 환담하고 현안보정세 및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 방안 등 논의.



**부평구회** : 11월26일 부평구청에 지역 내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김장김치 160상자(1상자 10kg) 전달.



**계양구회** : 11월27일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한 장학금 120만 원을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 기탁.

## 경기도 향군



**포천시회** : 11월27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송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병역체험 및 안보교육 실시.



**여주시회** : 11월24일 수능을 앞둔 관내 수험생들에게 마스크와 핫팩400개를 전달. 12월2일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실시. 여성회는 12월7일부터~18일까지 노인복지관 주관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목도리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하여목도리와 크리스마스 편지를 지역 내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

**시흥시회** : 청년단은 11월22일 관내 주요 공공시설에서 긴급 방역봉사활동 실시.

**군포시회** : 수능인 전 12월 2일 산본역 출구 및 산본 중심상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3차 유행 예방캠페인을 벌여.

**이천시회** : 부발읍회는 12월8일 관내 저소득층 장애가구 50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한우사골 및 잡뼈 100팩을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 강원도 향군

**인제군회** : 12월1일 사랑의 연탄 나눔 전달식을 갖고 관내 저소득 가구에 연탄 1,500장(100만원 상당) 전달.



**태백시회** : 12월14일 연말을 맞이하여 6·25 참전유공자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전달.



**삼척시회** : 12월18일 삼척시청을 방문,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

## 충청북도 향군

**보은군회** : 여성회는 12월4일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백김치 나누기 봉사활동 실시.



**청주시회** : 12월16일 관내 국가유공자와 회원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김치 100상자를 전달.

**음성군회** : 금왕읍회는 12월21일 음성군청을 방문, 지역 내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아동용 텐탈마스크 10만매 전달.

## 대전 충남 향군

**예산군회** : 여성회는 12월17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에 쌀 25포대와 라면 20박스를 전달. 삼교읍회는 11월30일 복지소외계층 가정



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30포(10kg)와 장학금 100만원을 삼교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



**보령시회** : 11월29일 연탄나눔 봉사활동 및 여울공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 이웃 사랑 실천.

##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12월16일 2020년 성과분석회의를 갖고, 통일 안보교육과 내년 개선총회 선거관리 위원 위촉장 및 선거관리 감시요원 임명장 수여, 근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업무보고 등 실시.

**고창군회** : 12월1일 향군 및 보훈단체 회원에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은 김장김치 전달.



**부안군회** : 11월27일 백산성지, 정유재란 견적지, 내소사 명승지 등지에서 안보현장 견학 실시, 안보 의식 고취. 여성회는 11월25일 상서면 소재 은총의집 요양시설에서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장수군회** : 11월27일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및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반찬나눔 봉사활동 전개.



**남원시회** : 여성회는 11월26일 스마일빌 요양원 김장봉사에 참여, 지체장애자들의 월동준비 지원.

지난해 10월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비롯한 15명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후 11월1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1948년 12월1일 제정된 국보법은 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국가안보 수호법이다.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는 이법의 핵심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민주주의 수호 최후 보루 국가보안법 제7조

국보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13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해 왔다. 2004년 참여정부시절에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친북성향의 단체들이 국민연대를 이루어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해'로 정하고 '국보법 폐지 10만인 청원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기존의 국보법은 반 국가단체가 대

### 향군역사 바로알기 26

##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향군의 대응 활동

법원으로 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강제해산이나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향군은 안보단체로서 참전 및 친북단체와 애국단체들과 연합하여 국보법 폐지 반대 및 개정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2004년 8월 국보법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렸으며 전 국회의원, 원로 정책자문 위원, 친북단체장들에게는 회장 서신을 보내 당위성을 설명하고 강력 투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 서명 운동 전개, 전단 60만장 제작 배포, 사이버 대응 활동, 전국 각급회에 현수막 설치, 국회 및 청와대 항의 방문, 국보법 개정 반대 대토론회, 대규모 규탄 궐기 대회, 여의도

에서 국보법 수호 가두 캠페인(시가행진), 자유민주주의 수호 비상시국 선언(기자회견) 등 결연하고 강력한 의지로 대응하여 결국 국보법 폐지를 저지시켰다.

아울러 2011년 9월15일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적단체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데 향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향군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북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고 북한의 핵 과 미사일등 현실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 핵 등 현실적 위협 상존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시기상조

또 북한은 분단 70년이 지났지만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전략전술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호시탐탐 도발과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오던 이 법이 폐기되면 반국가단체인 친북단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부르짖으며 인공기를 들고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 청년들이 의도적으로 군내부에 침투하여 공공연히 친북 및 찬양·고무 활동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소멸되는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정신전력 체계가 무력화되고 군 전투력이 약화되어 군사대비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제2보루인 향군은 제1보루인 국군이 확고한 정신무장과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되도록 자원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나 선부른 개정은 결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 땅에서 북한공산세력이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수호법안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홍보실>

**완주군회** : 여성회는 11월24일 완주군 지역사회봉사단이 실시하는 '사랑애' 김치나눔 봉사활동 참여, 이웃에 전달. 12월4일 관내 노인시설 감장봉사활동 전개.

**진안군회** : 여성회는 11월23일 진안홍삼고추장 담그기에 참여, 독거노인 및 불우 이웃에게 전달.

###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12월18일 안보회관에서 하반기 업무성과분석 회의를 갖고 업무 분석 및 주요추진업무 논의.

**광양시회** : 12월15일 '설담가'에서 전남 동부보호지정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함평군회** : 12월4일 관내 '성애원'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참여. 12월12일 함평 노인복지회관에서 점심도시락 봉사활동.

**장흥군회** : 12월16일 양유술 도회 사무처장을 초청,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내 정세와 포괄적 안보'를 주제로 안보강연회 개최.

**화순군회** : 11월23일부터 25일까지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기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

활동.



**강진군** : 12월9일 김문석 안보교수를 초청,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 경상북도 향군



**성주군회** : 12월5일 임실군회를 초청, 코로나 19 확산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국민화합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가져.



**구미시회** : 11월27일 상주 화령전투 전승기념관, 예천의 전통문화 유래지인 삼강주막촌을 비롯한 인근의 강문화전시관을 둘러보는 호국 문화유적지 탐방행사 실시.

**상주시회** : 11월17일 상주시청을 방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130만원을 전달

하고 훈훈한 온정 전달.

###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12월7일 회 재정 자립과 지역사회 봉사, 지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엔택타코리아와 업무 협약식 체결, 위상제고.

**창원 의창 성산구회** : 의창동회는 12월7일 연말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돈보기안경 100개(100만 원 상당)를 의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합천군회** : 여성회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 활동.



**거창군회** : 11월21일 거창사건 추모공원내 위령탑을 참배하고 안보관 확립 및 조직결속력 강화.

**밀양시회** : 삼랑진읍회는 11월21일 삼랑진역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코로나-19 대응 방역 봉사활동 실시.

**창녕군회** : 창녕읍회는 12월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읍사무소에 전달.

**통영시회** : 12월8일 연말을 맞이하여 해군

3함대 266해상감시장비운용대(육지도)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 12월15일 향군회관에서 자매결연 부대인 8358부대 1대대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함양군회** : 12월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인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함양군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하동군회** : 12월11일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에서 실시한 2020년 하동군 자원봉사 응모전에서 활동사진 부문(적량면 정유진 회장)과 영상사례 부문(진교면 이경숙 회장) 은상 수상.

###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12월10일 간담회를 갖고 회관건립 추진결과와 보고 및 계획을 논의하고 2021년도 안보활동 방향 등 논의. 12월3일 6·25전쟁 참전자를 선양하고 6·25전쟁 당시 시기별로 전쟁 진행 과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되돌아보는 6·25 전쟁과 제주도' 출간. 여성회는 11월25일 JDC의 후원을 받아 붉은오름 휴양림에서 오물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실시.

## 향군 장학기금 기부

( '20년 11월 21일 ~ '20년 12월 20일 )

-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권율부대 김홍수 1 (4)
  - 권율부대 강모아 2 (65)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 (275)
- ▶ 개인/단체
  - 영등포구 재향군인회 황태연회장 등 임직원 500
  - 법무법인 (유)원앤파트너스 정병원변호사 500
-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 향군 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 정병원 변호사 장학금 500만원 기탁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 정병원 대표 변호사가 12월7일 향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연말을 맞이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향군장학재단은 정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 향군과 협의하여 가정이 어려운 학생 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다.

### 황태연 영등포구 향군회장도 장학금 500만원



서울 영등포구 향군 황태연 회장이 12월10일 향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평소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참전용사와 향군회원 자녀들에게 매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황태연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불우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성우회 : 1월4일 서울현충원 참배.
-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 : 1월4일 서울현충원 참배.
- ▲대령연합회 : 1월4일 서울현충원 참배.
-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 : 1월6일 서울현충원 참배.
- ▲ROTC중앙회 : 1월6일 서울현충원 참배. 1월29일 국방컨벤션에서 임사총회 및 신년교례회.
- ▲포병전우회 : 1월14일 서울현충원 참배.
- ▲갑종장교전우회 : 1월15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신년교례회.
- ▲헌병전우회 : 1월21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향군 평생교육원, 머니S와 업무협약 ... 전략적 제휴

## 기업생존전략 세미나 통한 경제 활성화 공동 노력

향군 평생교육원이 12월4일 향군본부에서 머니S와 '언택트시대 기업생존 전략 세미나: 복지물 유통 판로 개척과 특허 전략' (이하 기업생존전략 세미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원의 기업생존전략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공동노력 하기로 합의했다.

평생교육원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고민이 있는 국내 1천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생존 전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한 복지물 입점 프로세스와 특허 활용 전략을 설명하여 참여 기업 및 소상공인의 만족을 이끌어냈다.

황동규 평생교육원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유통 판로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의 좋은 기회가 되



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머니S 김민철 산업국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언택트시대 기업생존전략 세미나는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재정부를 통해 2021년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 미 남서부 향군, 참전용사비 건립기금 전달



향군 미 남서부지회(회장 이승해)는 11월3일 가든그로브 사무실에서 OC 한국전 참전 희생 미군 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회장 노명수)에 기념비 건립 기금 1000달러를 전달했다.

## 미 서부 향군, 웨스트LA 재향군인병원 위로 방문



미 서부 향군(회장 김재권)은 12월11일 미주 근우회, 한미여성회와 함께 웨스트LA 재향군인병원을 방문하여 해 마스크, 성탄 카드, 무릎 덮개 등 한국에서 보내 온 위문품과 함께 한국 학생들의 감사편지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 미 동부 향군

### 재정 및 은퇴자금 관리 세미나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은 12월5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한 빌딩에서 재정 및 은퇴자금 관리 세미나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흥근 재정계획 상담사, 최민엽 회계사는 세미나 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특히 최민엽 회계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실업급여 등 지원금과 관련해 세금보고를 철저히 준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철 회장은 "회원들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철저한 대비로 대처를 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1천만 향군회원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홍보실

파킨슨병은 떨림, 경직, 운동완서, 보행 장애 등의 운동장애 뿐 아니라 인지장애, 우울증, 환각, 자율신경장애와 같은 비운동증상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의 장애와 삶의 질 저하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질환이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병에 걸릴 위험은 점점 커지게 되며, 노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 중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원인**

중뇌의 흑색질이라고 불리는 부위의 도파민 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왜 흑색질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약 15%의 환자들은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을 하고 환경적 영향이나 독성물질이 원인이 된다는 결과도 있긴 하나 아직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할 만큼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뚜렷한 발병 원인을 모를 때 '특발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파킨슨병 대부분이 이러한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된다.



**건강정보**

# 삶의 질 저하로 가족부담 가중시키는 파킨슨병

**증상**

파킨슨병의 증상은 운동 증상과 비 운동 증상이 있는데 운동 증상으로는 서동증, 근경직, 안정떨림, 자세 불안정 등이 있으며, 비운동 증상으로는 후각기능 소실, 수면장애, 자율신경이상, 정신이상, 인지기능저하, 피로, 발생부전, 연하곤란, 타액분비과다 등이 있다.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운동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되기 수년 전부터 이러한 비 운동 증상이 전조증상으로 있으나 환자들에게 특별히 증상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면 환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증상이 파킨슨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파킨슨병의 치료

법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심부뇌자극술, 신경과외술 등의 수술적 치료 3가지 방법이 있다.

파킨슨병은 초기에 약물치료와 운동만으로도 정상인과 비슷한 정도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보호자, 파킨슨병 전문의가 함께 노력하여야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킨슨병 약들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다.

물리치료는 굳어진 근육 및 관절을 풀어 운동량을 증가시켜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세교정, 보행훈련, 호흡훈련 및 말하기 등이 포함된다. 오랜 약물 복용으로 약에 의한 부작용 등이 생

겨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방과 관리**

예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또한 현재까지 파킨슨병의 치료나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은 없으나 체중 변화가 급격히 있는 경우보다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약효 소진 현상 등이 있어서 파킨슨병 약의 효과가 짧아진 경우,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은 레보도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식사는 약물복용과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모든 신경퇴행성 질환에 좋지만 특히 파킨슨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다. 따라서 본인의 상태 및 파킨슨병 단계에 따라 걷기운동, 체조 및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 및 균형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과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마지막회)

### 장사상륙작전

장사 상륙 작전 또는 장사동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14일~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벌어진 상륙 작전이다. 작전명 174고지라고도 한다. 9월14일 부산항을 출발한 이후, 9월15일 06:00에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대한민국군의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이 문산호를 타고 장사에 상륙하여 국도 제7호선을 봉쇄하고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철수한 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실시되어 양동작전으로서 성공하였다.

원래는 8군에 떨어진 명령이었으나 인민군 복장을 입고 특수 작전을 해야 하는 사정상 북한 군과 외모가 비슷한 남한 출신 학생들인 학도병에게 작전명 174를 맡긴 것이다.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한 학도병을 제외하면 모두 행방불명 상태이다. 원래는 3일간 상륙한 뒤 귀환할 예정으로 총기 등의 물자도 3일치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문산호가 좌초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총알과 식량이 부족해진 가운데에서도 7번 국도 차단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후 고립된 학도병들을 구출하러 배(조치원호)를 보냈지만, 일부는 승선하고, 승선하지 못한 학도병들은 전선에 남아 전투 중 북한군에 의해 대부분 전사하였다. 배가 상륙하면 배까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상륙작전에 동원되었던 문산호는 1991년 3월쯤에 난파선으로 발견되었다.

# 인천상륙작전 성공 토대 마련, 한국 전쟁사 영원히 남을 전투

## 772명 학도병의 희생과 송고한 뜻 기리고자 2020년 6월 개관

###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은 국내 최초의 바다 위에 개관된 호국전시관이다.

이 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국면 전환에 크게 기여한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 성공의 교두보 역할을 한 장사상륙작전(1950년 9월 14일)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

1997년 참전 학도병들이 '장사상륙작전 참전유격동지회'를 결성하고 좌초된 문산호로 추정되는 선체가 확인됐다. 이에 영덕군은 2009년 현충시설 심의 의결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2년 12월 사업비

324억 원을 투입해 착공에 들어가 2020년 3월 완공했다.

실제 장사상륙작전이 이뤄진 장사리 해안에 당시 병력을 수송한 군함인 문산호를 길이 90m, 높이 26m의 실물 크기와 형태 그대로 재현해 기념관으로 만들었다.

기념관은 감관 아래 2개 층과 그 위로 3개 층 등 5층 규모다. 1층은 장사상륙작전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 전투에 참여한 학도병 유격대대의 결성 과정, 출동 상황 등을 설명하는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장사상륙작전의 작전 전개 시점부터 종료 상황까지를 살펴볼 수 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휴게 시설로 조성했으며 향후 이곳은 각종 전시전과 체험전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전우여! 어디에 ...

• 김동원씨가 부친이 근무했던 30사단 90연대 4대대 3중대에서 1982년~1985년 사이에 근무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동원 010-3320-1927 문자 부탁합니다>

• 김동희씨가 1984년 7월 11일 5사단 27연대 4대대 입대 전우 김삼곤 이명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김동희 010-3746-9078>

• 박상호씨가 1980년에서1982년 사이 506중대에서 같이 근무한 전우 부산 가야고24회 졸업생 정경화, 후임 이영후와 정동철, 대구 김기현, 인천 지재만, 청원 정택춘, 서울 석근영, 함안 홍성재, 논산 이호영 하사, 고성 거류면 (대가면)이종권씨를 찾습니다. <박상호 010-2930-0458>

• 이경호씨가 1996년 강릉무장공비 소탕작전을 같이했던 12사단 51연대 4대대 15중대 소대장과 전우 류동현, 이종도, 류지철씨를 찾습니다. <이경호 010-5543-2263>

• 이상익씨가 1979년~1982년 사이 육군직할 방공포병사령부 방공포병 제2여단 122대대 2포대(당진포대/7030부대/당시 포대장 소령 민방식) 전우들을 찾습니다. <이상익 010-3466-5900>

###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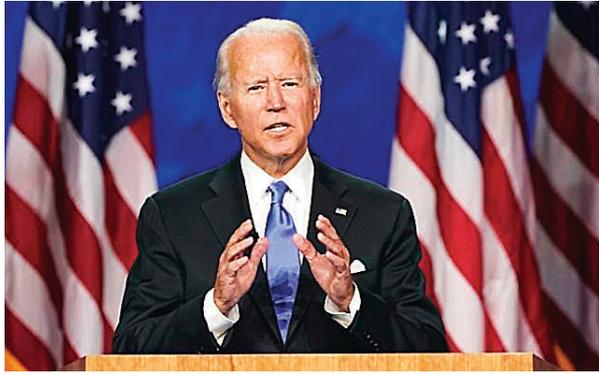
안보정보보고/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 동맹의 중요성 강조, 한반도 및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역할 요구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징

바이든의 당선은 비정통 보수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도 진보로 바뀔 것을 의미하나, 유권자 절반 가까이 트럼프에게 표를 주어 트럼프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제적 피해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극복시키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외정책에 국내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관심과 자원 배분도 제한될 것
- 그동안 잃었던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에 나서게 될 것이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무시하고 파괴적이며 거래적인 트럼프 외교를 청산하여 동맹·동반자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인권·반부패 등 가치 중시를 위해 그 수단으로 외교·개발·제도에 의존할 것이다. 동맹과의 협조가 많아지는 만큼 동맹에 대한 합당한 책임 분담 요구도 늘어날 것
- 대북정책은 원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외교를 추진하되 제재와 대화의 동시추진으로 트럼프 정부의 '툰다운' 방식 보다는 '보팀업' 방식을 선호할 것
- 중국 관련 미국 사회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대립정책은 지속하지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규범을 존중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독자행동에 의존하던 트럼프와 달리 동맹국·파트너와 함께 연합하여 지역·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다.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제협조가 필요한 사안에는 연계하고, 기술·안보·전략 관련 사안에는 압박하는 이중적 접근이 예상된다
-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역내 민주국가들을 중심으로 미·중간 마찰요인인 다양한 사안에 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
-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협정, 유네스코, WHO,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복귀할 것



태평양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한국은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 수준을 식별하여 전향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동맹관계 회복과 다자협력체제 구축 노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중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분야의 다자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모색하여 중견국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 대북정책 전망 및 대응 : 동맹과의 공조 하 대북정책 추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미국은 동맹 공조 논리에 입각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일 갈등의 해소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안정적 운용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대한국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과거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새로운 출발점과 방향성을 수립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향식 접근법 대신 실무 협상 중심의 상향식 접근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 진전 시에만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에 있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를 참고할 것이며,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동맹체제 강화 및 새로운 비핵화 협상 방식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 담보를 위한 한미 공동의 접근법을 도출하고, 북한의 전략 도발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태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단계적 해법 제시와 같은 새로운 비핵화 방안에 대한 대비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한미동맹 전망 및 대응 :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과 강화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의 논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긴밀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정책을 전개할 전망이다.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지역 안보, 그리고 대중 전략에 있어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되 동맹 준종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는 지양할 것이다. 미국의 국외 중시 논리를 일선 부분 동맹정책에 반영하나 거래적 관점이 투영된 분담금의 증액은 지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강조하면서도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에 따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서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출범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환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논리를 고수하는 한편 정치적 고려는 배제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하, 한국은 동맹의 역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등 동맹 현안을 식별하여 바이든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방향과 관련한 전략소통을 강화하고, 2018년 제5차 한미안보회의(SCM)에 제시된 전작권 전환의 핵심 프로세스에 관한 실질적 이행 추진이 필요하다.

## 미국의 북한비핵화 협상 전망

### 1)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

민주당은 그간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왔으며, 핵비확산 레짐에 대한 입장은 더욱 그러하다. 바이든 당선자도 그 동안 '핵 없는 세상'을 주장했고,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의회 비준에 공을 들였으며,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원칙에 입각한 실용적 협상

북한과의 협상 방식에 있어서는 실용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지만,

이는 '단호한 외교' 방식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그간 바이든 캠프는 한미연합훈련의 발목을 잡는 '동결 대 동결' 방식의 현상유지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단호한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토대로 이란을 핵협상으로 유도했고, 핵협상에서는 NPT 체제의 강력한 검증 매커니즘 수용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핵협상을 재개하기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지만, 일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된 방식의 비핵화 대화에 동의할 경우 트럼프 정부보다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 3)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 활용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재를 심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압박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캠프는 북한과의 협상에 중국을 활용하는 방식을 언급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핵무장한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전략적 부담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을 먼저 겨냥할 것이고 세컨더리보이콧을 비롯한 대중 제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을 비호하기 보다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회피하게 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한·미·일 공조

한미일 공조는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로 불리는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지만, 북한의 WMD·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요청될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들이인 확장영역의 강화와 연합훈련의 재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오인을 초래해 공세적 행동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를 중요시할 것인데,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하게 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미국의 동맹정책과 미국의 대중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와도 같다.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충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 이후 북한 비핵화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핵화·평화체제 문제를 연계하여 준비하는 단계가 예상되며, 따라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한국의 입지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의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 방향으로 고착되기 전에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팅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

- 한·미관계 결렬될 방위비 분담 협정 타결, 주한미군 유지 등은 순풍 예상.
- 북핵 해법에 있어 상황식 교섭과 원칙적 접근 강조 예상.
- 전시작전권 전환관련 '조건과 시기'의 문제 중 '전환조건 충족' 우선 입장 예상.
- 미·중 대결 국면 속 대중국관계 확실한 입장 요구 예상.
-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요구 압박이 높아질 것
- 미국이 양자서 한일관계 정상화 조치 요구를 압박할 것.
- 한국 정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북한 인권 관련 동맹 요구'가 강해질 것

## 【참고자료】

- 1) 미국 대선 이후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2020. 11. 3, 한국국방연구원.
  - 2)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특징, 2020. 11. 10, 한국국방연구원, 요약 발췌.
- ※ 본 안보정보 분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용어 설명】

거버넌스(governance) :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레짐(regime) :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 레짐은 인간의 행태나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을 제공.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정권이 바뀌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중관계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파기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이 대외정책의 기조가 되어 동맹 관계 등이 재편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과 전망을 통해 각 사안별 대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미국의 대외 정책중 미중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대북정책, 한미동맹, 비핵화 협상전략에 관한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을 전망하고 각 사안별로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 미·중 관계 전망 및 대응 : 동맹과 거버넌스 기반 대중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동맹과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수립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복귀'를 의미한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전략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은 동맹과의 관계 개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역할 증진, 민주주의와 인권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대중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정책을 추진이 예상되어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과 다자적 접근을 통해 대중압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재정립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할 전망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할지는 불투명하다. 단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과 같은 사안에서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래 기반'으로 치부되었던 한미동맹을 '가치 기반'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동맹 재정립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로서 한미동맹이 주목받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과 협력 정책을 구분하여 각 정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수준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

## 인도-태평양 전략 전망 및 대응 : 대중국 다자 공조 하 경쟁-협력 공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간 공조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국경적인 비전통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가능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안보와 군사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억제하고, 만약 억제에 실패할 시 지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고 "태평양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과 광범위한 압박전선을 형성하는 다자적 접근법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중국과의 군사경쟁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역내 양자관계와 다자기구를 통해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이원적인 인도-